

junggu.ulsan.kr
2018 SUMMER / VOL.177

주거뉴스



2018 울산마두희축제에 53만명 방문
울해도 중구 물놀이장서 더위 탈출

마두희, 울산 중구의 명함같은 역할할 것
일자리 만들기과 구도심 상권살리기 집중



2018 울산마두희축제 '성료'



6월 22일부터 3일간 원도심과 태화강변에서 열린 2018 울산마두희축제가 '성료'됐다. 울산 중구민과 지역 시민, 관광객 등 전체 53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며, '마두희축제' 개최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겼다. 태화강변에서 폐회식과 함께 진행된 불꽃놀이처럼 밝고, 아름다운 모습만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남겨준 채 순식간에 사라졌다. 32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울산마두희축제가 내년에는 더 크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돼 울산과 중구를 알리는 전국 제일의 축제, 세계 속의 축제로 성장하길 불꽃놀이를 통해 다시 한 번 기원해 본다.



문화관광도시 '중구'서 즐겨라

- 05 2018 울산마두희축제, 마두희 53만명 다녀가다.
- 08 마두희축제, 울산 중구의 명함같은 역할할 것
- 10 클럽으로 변한 원도심, 나이트데이
- 12 중구, '문화의거리 아트프로젝트 울산 2018' 개막
- 14 태화강변 재즈로 물들다.
- 15 어서와 원도심, 엄친아 취미생활 특강
- 16 올해도 중구물놀이장서 더위 탈출

주민중심 중구 행정이 다양한 '수상'으로

- 18 든든한 지방정부 구현, 일자리 만들기과 구도심 상권살리기 집중
- 19 아틀리에에 도시 전 부서가 함께 만든다.
- 20 중구, 복지사각지대 주민 잘 챙겼다.
- 21 중구,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 22 중구보건소,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서 '최우수기관상' 수상
- 23 중구 지역민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잘했다'
- 24 중구, 어린이급식 수준 높였다.
- 25 중구도시관리공단, 창의혁신 성과 '인정'받았다.



표지이야기

2018 울산마두희축제의 메인 행사인 큰 줄당기기가 원도심 시계탑사거리에서 진행됐다. 동군과 서군이 힘을 겨뤄 동해 바다로 빠지는 울산의 정기를 끌어오는 마두희는 시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면서 과거의 의미는 물론, 현재의 즐거움까지 더 했다.

발행·편집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발행일 2018. 06. 29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북산동)

Tel. 052. 290. 3270

홈페이지 <http://www.junggu.ulsan.kr>



매일 한 걸음씩 발전하는 '중구'

- 26 중구, 문화의거리 확대 지정
- 27 중구, 우수기 침수 피해방지 '만전'
- 28 2018 중구 구민의 날 행사 개최
- 29 중구, 제1기 울산큰애기 SNS서포터즈 모집

- 30 우리가 본 중구-중구뉴스 기자단
- 32 중구의회
- 34 생활정보

2018 울산마두희축제, 마두희 53만명 다녀가다

유료 참가에도 큰줄당기기 여전히 '인기'...
문화의거리, 태화강변 북적여
볼거리, 즐길거리 늘어나 방문객들 재미 더 해...
원도심 상권활성화에도 기여

□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울산 중구 지역 최대 규모의 축제인 '2018 울산마두희(馬頭戲)축제'가 성황리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울산마두희축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중구 문화의 거리와 성남동 태화강변 일대에서 열린 '2018 울산마두희축제'에 전국에서 찾은 53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축제 개최 이후 가장 많았던 48만명이 다녀간 것보다도 5만여명이나 많은 수치로, 콘텐츠의 다양화가 만든 결과로 분석됐다.

'2018 울산마두희축제'의 메인 행사인 큰 줄당기기는 지난해와 같이 유료로 운영됐음에도 3,060명이 유료로 참여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축제추진위는 지난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메인 행사인 큰 줄당기기의 참가신청 시 6,000원을 받았으며, 올해도 참가비는 같았다.

참가자에게는 지난해와 같이 큰 줄당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5,000원 상당의 마두전과 기념티셔츠, 기념품을 제공했다.

축제기간 동안 사 용 가능한 마두전은 원도심 일원의 참여업소와 태화강변 푸드트럭존, 울산큰애기야시장





매장 등 100여곳의 상점가에서 화폐와 똑같이 사용됐다.

축제 첫날인 22일 오전 11시 울산동헌에서 전통문화인 화전 놀이를 시작으로 오후 4시에는 기원행사와 비녀목 운반, 오후 7시에는 문화의 거리 메인무대에서 개막주제 공연과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되는 개막식이 열렸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큰 줄당기기의 비녀목 운반에는 박문태 울산 마두희축제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취타대와 풍물패 등이 함께 하며, 과거 울산 중구에서 진행됐던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해 냈다.

이후 개막식에서는 울산 중구의 인물인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과 아동문학가 서덕출 선생, '타향' 등을 부른 인기가수 고복수 선생, 조선 최고의 외교관 이예 선생 등 5명이 나와 '과거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주제공연을 펼쳐 의미를 더 했다.

또 중국 정부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중국민족문화 예술기금회 우란무치공연단의 내몽골 마두금 연주가 진행됐다.

마두금은 말머리 모양의 기타와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왕이나 왕비 앞에서 연주하는 공연이나 대규모 축제, 명절 등에 부르는 노래에 함께 연주하는 악기다.

중국 자치구 내몽골 우란무치공연단 꺼르러투 단장은 "한국의

울산 중구에서 진행되는 마두희에 처음 참가했는데 다채로운 공연을 함께 진행하고 보면서 흥분과 감동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중국에 울산마두희축제를 알리으로써 더 많은 중국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23일에는 중앙길에서 동대항 줄다리기가 진행돼 중구 민들의 화합과 단결된 힘을 보였다.

동대항 줄다리기의 우승팀인 다운동의 이상철 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우승하게 돼 기쁘다"며 "동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해 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더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날 울산동헌에서는 전국소리경연대회가 개최돼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고, 동이약국 앞과 시계탑 사거리에서는 줄타기 공연이 열려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시계탑사거리에서 진행된 마두희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울산 큰 줄당기기는 도호부사 입장, 혼페퍼포먼스, 어울림한마당 등으로 진행됐다.

유료참가자만 3,060명으로 지난해 보다 1,000여명 가량 늘어난 이번 큰 줄당기기는 3판 2선승제로, 동군과 서군이 겨뤘 첫째 판을



이긴 동군이 셋째 판까지 가져가며 동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마두회는 동군이 이기면 가정의 화목이, 서군이 이기면 금전운이 들어온다는 말처럼 동군의 승리로 올 한 해 가정이 화목하길 기원했다.

김영나(다운동) 씨는 “마두회는 모든 참가자와 주민이 함께 화합하고, 참여하는 놀이”라며 “함께 힘을 쓰고, 그 속에서 우애를 다질 수 있어 여타 축제와는 다른 즐거움을 더 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저녁 늦은 시간 젊은 참가자들과 방문객들의 취향을 저격한 마두회 DJ난장쇼와 호프거리 일원에서 펼쳐진 성남댄싱나이트로 인해 원도심은 커다란 클럽으로 변모했다.

울산큰애기야시장은 원도심을 찾은 시민들로 북적였고, 원도심 곳곳에 자리 잡은 크고 작은 술집들은 빈자리를 찾지 못할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한 몫을 톡톡히 했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영남 한복패션쇼와 태화강변에서 동대항 씨름대회가 펼쳐졌다.

또 지난해 처음 신설된 울산 중구의 대표 캐릭터인 ‘울산큰애기’의 선발대회가 열려 울산큰애기 싱글 부문과 울산큰애기&모녀 커플, 울산큰애기&삼돌이커플을 뽑았다.

이후에는 동헌에서 비녀목을 운반해 태화강변에서 정화의식과 함께 수통기원제를 지냈고, 비녀목을 안착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해 마두회의 의미를 상기시켰다.

올해는 마두회 역사관과 체험존이 마련돼 320년 전의 모습을 재현하며 지역성과 역사성을 살렸고, 줄 난장 프로젝트도 진행돼 집단 줄돌리기, 줄넘기 오래하기 등이 진행되면서 마두회의 주제료인 짚과 줄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늘렸다.

메인행사 이외에도 생활예술인 경연대회, 마두회 가수왕, 버스킹과 청소년 행사, 전문거리공연과 프린지 공연 등 눈길을 끄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울산마두회축제를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태화강변에서는 전국 특산물 팔도장터를 개설해 전국 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했고, 단오날 행해졌던 씨름대회가 열리는 태화강변에 먹거린 난장을 운영해 씨름 장터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축제의 먹거리를 증가시켰다.

태화강변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2018 울산마두회축제의 대막을 알리는 시상식은 물론, 불꽃놀이가 진행돼 밤하늘을 오색빛깔로 물들이면서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울산중구

마두희축제, 울산 중구의 명함같은 역할할 것



□ 중국 소속의 단체공연단이자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와 같은 중국 자치구 중 하나인 내몽고의 우란무치공연단이 2018 울산 마두희축제를 함께 했다. 올해 처음으로 초청받아 개폐막식에서 말머리 모양의 기타와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마두금 연주를 한 것. 10여명으로 이뤄진 이 공연단은 큰 줄당기기인 마두희가 중국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 문화 교류가 활발해 지길 바랐다. 울산을 대표하는 민속축제이자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난 울산마두희축제의 장점과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공연단장 꺼르러투와 이들의 영상을 담기 위해 함께 온 중국 중앙CCTV 연출가 위샤오양에게 들어봤다.

Q. 울산마두희축제에 참여한 소감은?

- 울산마두희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울산 중구에 처음 왔다. 마두희라는 320년 전의 놀이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이렇게 훌륭하게 복원해 많은 시민들이 즐긴다는 것에 크게 감명받았다.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축제를 지금의 시민들이 지속해서 만들어

한국의 높은 문화예술 수준 느껴...
중국과의 교류 확대로 많은 중국인들 참여할 수 있길

간다는게 정말 신기했다. 큰 줄당기기 이외에도 줄타기와 다양한 공연 등을 보면서 한국의 높은 문화예술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부분도 많았다. 이런 축제가 중국에도 알려질 수 있도록 중국과 한국의 문화예술에서 더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한다.

Q. 이날 한 공연의 내용은 무엇인가?

- 중국 자치구의 하나인 내몽고의 초원에서 축제나 명절 때 불렀던 노래다. 또 왕과 왕비 앞에서 불렀던 몽고 전통 노래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원을 빌고, 제사를 지낼 때 시민들이 부르는 노래도 있었다. 말머리 형상을 한 기타와 같은 마두금을 가지고 연주를 하며 부르는 노래다. 이번 공연에서는 마두금 외에 후두금이라는 기타와 같은 악기도 사용됐다. 둘 모두 1,300년대부터 만들어져 사용된 악기로 알려져 있다. 노래는 태양이 솟아서 인생이 순탄하고 아름답길 바라는 내용으로 울산마두희축제에 참여한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불렀다.

Q. 울산 큰 줄당기기인 마두희에 대해 알고 있나?

-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굵은 줄을 당기는 마두희는 그야말로 예술성과 실용성, 오락성을 모두 갖춘 놀이라고 생각된다. 내몽고에도 나담 축제라고 많은 부족민들이 함께 한 곳에 모여서 몽고씨름과 말 경주, 말을 타고 활을 쏘기, 한국의 소싸움과 같은 송아지 싸움 등을 즐기는 행사를 한다. 오랜 역사가 있는 축제인데, 울산마두희축제를 보면서 그런 축제처럼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전통있는 축제라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축제가 울산 중구는 물론, 울산시를 전국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명함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Q. 울산마두희축제가 중국인들에게 알려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마두희라는 놀이를 중국인은 물론이고 많은 외국인들이 모르는 것 같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를 이용해서 중국과 합작으로 마두희를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어서 알렸으면 한다.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을 이용해 축제를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또는 마두희축제에 중국과 한국이 함께하는 작은 영화제를 만들어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청소년 교류 축제 등이 포함돼 많은 중국인들이 마두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마두희를 제대로 알리고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문화교류가 있어야 마두희가 세계 속의 축제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루빨리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편을 나뉘어 마두희 줄당기기를 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정말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울산중구

클럽으로 변한 성남동 들썩이다.



□ “거리가 클럽이 되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줄 몰랐어요. 새로운 문화를 만든 것 같아요.”

울산 중구 원도심 젊음의거리 내 호프거리가 파티를 즐기기 위해 모인 젊은이들로 들썩이며 올해 처음 야외클럽으로 변했다.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중구 성남동 젊음의거리 구간 내 호프거리에서 진행된 야외형 클럽인 ‘성남나이트데이’에 전체 1,000여명의 젊은이들이 참여하면서 소위 ‘대박’을 쳤다.

2018 울산 중구 도시재생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현재 젊음의거리 구간 내 유일하게 침체된 포차거리 인근의 상인들과 협력해 특색 있는 거리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가 진행되는 구간은 폭 9m, 길이 150m 가량으로 길 양옆으로 각종 음식점들과 주점이 늘어서 있는 호프거리로, 아케이드가 씌워져 있고 양쪽으로 다양한 종류의 주류업소가 자리잡고 있다.

중구청은 이곳에 흥대앞 클럽분위기가 나는 나이트 조명을 설치하고, 다양한 음향장비를 동원해 거리 전체를 무대로 사용함으로써 이곳을 찾은 손님들이 자유롭게 거리로 나와 노래와 춤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2018 중구 도시재생 프로그램 사업, 성남나이트데이 ‘대박’ 지역 청년 등 1,000여명 찾아 신나는 댄싱파티... 9,900원 특별메뉴 인기 만점

또 한 편에 만들어진 무대에서는 유명DJ의 다양한 믹싱은 물론, 유명 힙합 TV프로인 고등래퍼 1위 YOUNG-B 양홍원을 비롯해 52mm와 Sempre, Xtyle, Cadance 등 여러 힙합가수의 열정적인 공연이 펼쳐져 거리를 한껏 달궜다.

특히,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곳곳에서 펼쳐진 기차놀이, 손흔들기, 소리지르기 등의 소통을 통한 관객 참여로 갑자기 더워진 날씨를 젊음의 열기로 오히려 식혀버렸다.

부산에서 올라온 김민서(23) 씨는 “SNS를 통해 성남나이트데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뒤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 수 있을 것으로 느껴져 직접 찾아왔다”며 “부산에서 올라왔지만 정말 후회가 되지 않는 즐거운 하루였고, 앞으로 20~30대를 위한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젊은 사람들이 성남동으로 많이 찾아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젊음의거리 상인회와 협업을 통해 호프거리 내 여러 음식점들이 술과 안주를 9,900원에 제공하는 특별메뉴를 만들어 제공하고, 일부 테이블을 야외에 비치해 거리에서 즐기도록 함으로써 20~30대 젊은이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친구와 함께 성남나이트데이를 찾은 오민혜(27) 씨는 “저렴한 가격으로 술과 안주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상권과 함께 마음을 모은게 지갑이 헐거운 젊은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비법인 것 같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울산은 물론, 전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 놀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위한 재미난 아이디어가 많이 적용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2018 성남나이트데이는 호프거리 내 클럽놀이문화 등 이색 볼거리를 통해 20~30대의 문화 향유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인근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날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전체 5차례에 걸쳐 열린다.

6월은 울산 중구의 핵심 축제인 ‘2018 울산마두희축제’와 8월에는 지난해 처음 개최해 큰 인기를 끌었던 ‘태화강 치맥페스티벌’과 함께 연계해 그 효과를 더 높일 계획이다.

중구청은 지난 2016년 시범사업으로 ‘성남댄싱 나이트데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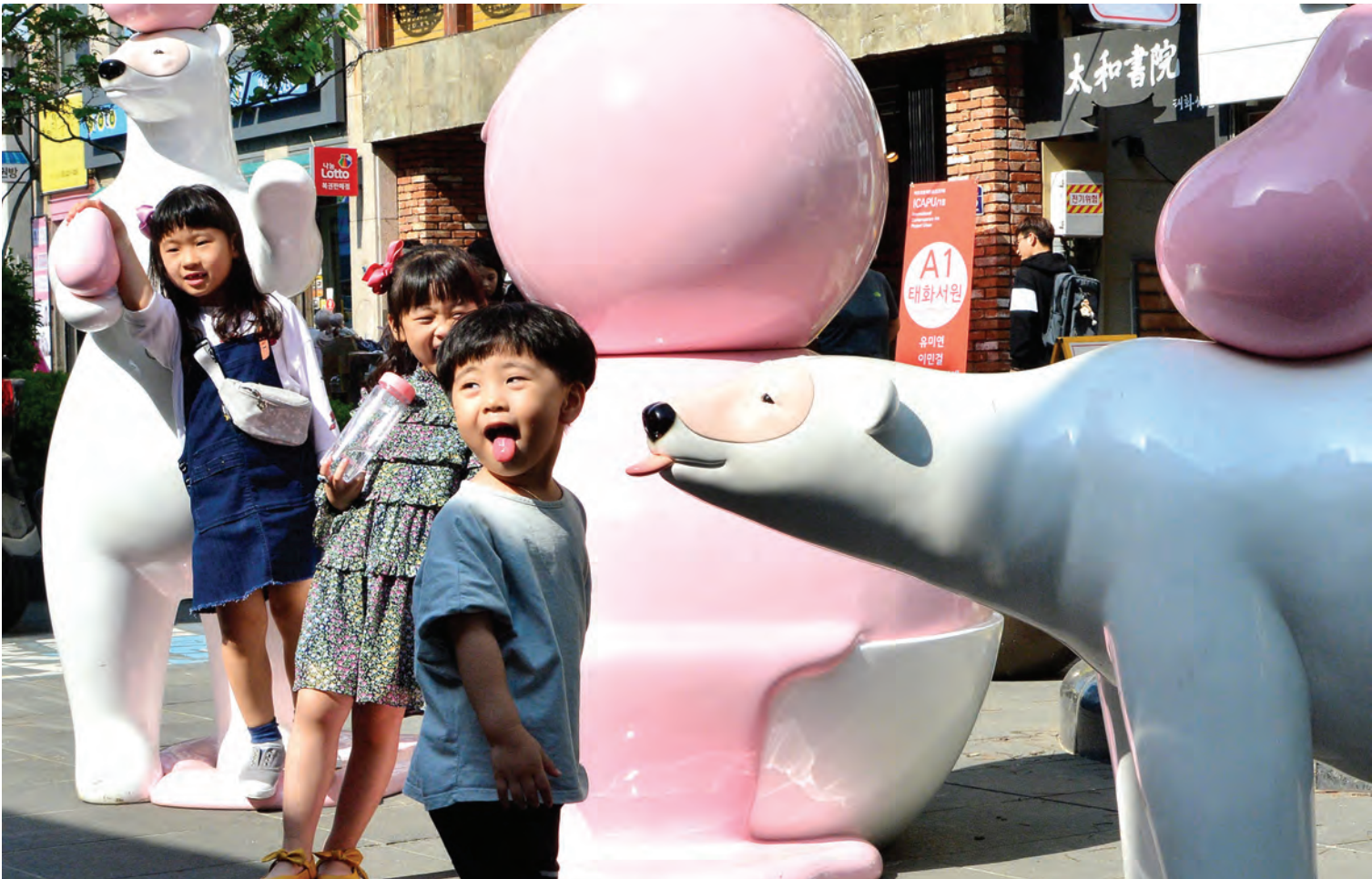


처음 시작했고, 지난해 7월부터는 매월 1차례씩 호프거리 내 상점과 연계해 비활성화 된 상가 장소를 대여한 뒤 하우스 뮤직파티 등을 개최함으로써 젊은이들을 원도심으로 불러들였다.

실제 지난해 성남댄싱 나이트데이 이벤트 참여업소가 최초 상인회 중 14개소였으나 마지막인 11월에는 17개소로 확대됐으며, 이 행사로 인한 매출도 평소보다 30%이상 증가가 된 것으로 당시 상인회는 집계했다.

중구청은 이날 성황에 힘입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SNS 등을 활용한 홍보로 ‘성남나이트데이’를 지역 내 대표적인 젊은이들의 축제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포털사이트나 관광 홈페이지 등에 소개될 수 있도록 해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젊은 관광객들을 원도심으로 불러들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중구

문화 흐름, 문화의거리에서 느끼세요.



울산 중구 원도심 내 문화의거리 일대가 예술 작품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대형 전시관으로 변했다.

중구청은 지난 4월 28일 옛 울산초등학교 맞은편 문화의거리에서 '아트프로젝트 울산 2018'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전시에 나섰다.

'문화의거리 아트프로젝트 울산 2018'은 지난 2013년 '문화의거리 아트페어'를 시작으로 올해로 6회째 개최되는 대규모 거리 미술제로 올해는 'WAVE'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됐다.

중구, '문화의거리아트프로젝트 울산2018' 개막... 오는 7일까지 진행
문화의거리, 종갓집예술창작소, 갤러리 등에 국내외 80여 작가 작품 170여점 전시



□ 'WAVE'는 현대미술의 흐름에 있는, 다양한 국·내외작가들의 참여로 현시대 다양한 창작물결의 세계를 한눈에 조망하고, 현대미술의 흐름에 중심에서 아트프로젝트 울산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진단해보자는 의지가 담겼다.

올해 행사는 문화의거리 일원을 비롯해 울산도호부의 도총소(都摠所)였던 태화서원과 복합문화공간인 종갓집예술창작소 등 공공장소 2개소, 가다와 라온, 유 등 갤러리 11개소는 물론, 울산교 입구까지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된 구간에서 작품이 전시됐다.

행사에는 국내외 작가와 동아대학교와 울산대학교 학생팀 등 80여 작가가 참여했고, 전시된 작품만 170여점에 이른다.

올해는 가수 남궁옥분과 배우 김혜진·오초하·이화선, 아나운서 최지인과 개그맨 임혁필 등 그림그리는 연예인들의 초청 전시가 'WALL'과 '로코코'에서 진행돼 연예인이 아닌 화가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또 지난해 보다 7점 늘어난 전체 14점의 대형 조형 작품들이 확대된 문화의거리 일원에 전시돼 가로수와 벤치, 기존 전시 작품들과 어우러진 작품들을 야외에서 만나볼 수 있게 했다.

특히, 전은규 작가의 작품 'ground'의 경우에는 현장의 누구라도 작품을 직접 만지거나 때려볼 수도 있도록 해 특히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외에도 28일과 29일 이틀간 청년창업 전시기획사가 자신들이 보유한 미술품을 디지털 작품으로 전환해 보여주는 우리 동네 미술관 행사가 열려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역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인 종갓집예술창작소에서는 지역 공예작가들의 업사이클링전시회를 열어, 각종 공예작품을 들고 나와 전시현장을 풍성한 아트상품으로 꾸몄다.

원도심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전시 관람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28, 29일과 5월 5일과 6일에는 프리마켓이 열려 다양한 수공예품을 선보였다. 울산
중구

태화강 재즈로 물들다.

5월 12~13일 2018 태화강 재즈페스티벌 개최

유럽 최정상 재즈뮤지션 공연 등 색다른 즐거움 제공



□ 유럽 최정상의 재즈뮤지션들이 울산을 찾아 봄 태화강변을 재즈로 물들였다.

중구청에 따르면 5월 12~13일 양일간 태화강 대공원 일원에서 2018 태화강 국제재즈페스티벌이 개최돼 1만2,000여명의 관객이 몰렸다. 관객들은 관람석 뿐 아니라 텐트와 돛자리에서 와인 잔을 기울이거나 맥주를 즐기며 봄밤 강변에 울려 퍼지는 재즈선율에 취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서정적인 곡을 연주한 프랑스의 '레미 파노시앙 트리오'와 북유럽 재즈의 진수를 보여준 핀란드의 '이노 란탈라 슈퍼 트리오', 폭발적 연주를 선보인 일본의 '카오리 고바야시', 독일 최고의 남성 재즈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올그 세이텔' 등 해외최정상 재즈 팀의 공연은 울산을 비롯해 서울, 전주 등지에서 온 재즈매니아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이외에도 SNL 메인 밴드인 '커먼 그라운드'를 비롯해 '더 버드', '김준범 트리오', '캐빈 밴드'와 '이현석의 Korean Morse Code', '진수영 퀸텟' 등 실력 있는 국내 팀들이 함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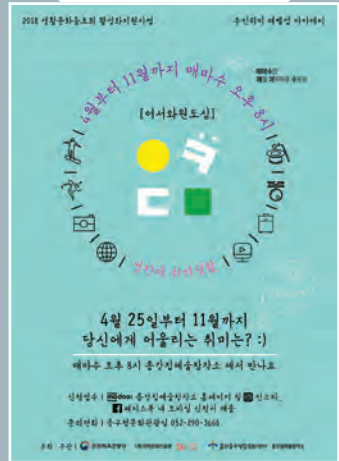
특히 '이노 란탈라 슈퍼 트리오'는 이노 란탈라(피아노)와 댄 베르굴룬드(베이스), 매그너스 외스트뢰름(드럼) 등 유럽 최정상의 뮤지션 세 명이 뭉쳐 2018태화강국제재즈페스티벌을 위해 처음으로 프로젝트 공연을 선보여서 큰 박수를 받았다.

올해 태화강 재즈페스티벌에는 재즈매니아들의 요청으로 '와인바'가 올해 처음 운영됐고, 다양한 체험부스와 행사 기념품샵은 물론, 행사 로고가 새겨진 T-셔츠와 에코백도 큰 인기를 끌었다. 문화관광부

종갓집예술창작소 '어서와 원도심' 본격 운영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인 2018 문화가 있는 날 공모 선정

11월까지 전체 15차례 진행... 4월 25일 첫 수업 '엄친아 취미생활 특강' 열려



□ 울산 지역 문화 향유공간인 '종갓집예술창작소'가 일상이 문화와 예술로 발전하는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어서와 원도심 사업'을 추진한다.

'어서와 원도심'은 주민의 주체적 참여 확대와 생활문화동호회 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공모사업 '2018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울산 중구의 사업이다.

중구청은 지역 문화 향유공간인 종갓집예술창작소에서 주민 생활문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기량을 발휘 가능한 계기를 마련해 주민의 주체적 문화 활동의 진흥기반을 만들고자 '어서와 원도심' 사업을 기획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 동아리들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취미사전'을 제작하기 위해 이달부터 조사를 모집해 오는 6월까지 조사와 연구를 벌인 뒤 7월쯤 자료집의 발간에 나선다.

또 프라모델·민화동아리, 피규어 동아리 등 소모임을 형성한 뒤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전시회를 개최하는 '취미마당'을 오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지하1층 음악연습실을 활용해 지역의 락 동아리와 락을 좋아하는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메이킹 락' 공연을 6월 29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생활 속에서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취미활동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엄친아 취미생활 활용법' 강의도 열린다.

지난 4월 25일 오후 8시 센터 1층에서 진행된 주민아카데미 '엄친아 취미생활'의 첫 수업에서는 15년차 경력의 미술사 신현재

씨를 초청해 '미술, 어렵지 않아'라는 주제로 다양한 미술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5월에는 예술버스킹이, 6월에는 유튜브, 7월에는 사진, 8월과 9월에는 다국적 취미생활&직장의 신과 여행&그림, 10월과 11월에는 탱고와 스노우보드 등에 대한 주제로 지역 내 엄친아들의 남다른 취미생활의 활용법을 알려주는 강연이 이어진다.

7월에는 센터 옥상정원에서 문화예술 파티 '고기떡장'을, 9월부터 10월까지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진전인 '우리동네 찰각전'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 뒤 11월에 1층 다목적실에서 사진전도 연다.

10월에는 중구 중앙길 171-1에 위치한 갤러리에서 모든 지역 주민동아리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유희공간 활용한 주민 협업 커뮤니티 축제인 '어서와 원도심'을 개최한다. 



올해도 중구물놀이장서 더위 탈출



□ 울산 중구청은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동천과 다전야외물놀이장, 성안물놀이공원과 복산 물놀이장, 우정공원 물놀이장을 동시에 개장하고, 본격적인 여름 더위 사냥에 나섰다.

올해 동천과 다전야외물놀이장의 경우 지난해 이국적이고 화려한 풀장 분위기에 더해 쿨존(cool zone)과 물대포(water cannon)를 새롭게 추가했다.

쿨존은 물을 낮은 온도로 고압 분사함으로써 시원함을 제공하는 공간이며, 물대포의 경우 물을 고압으로 쏘아올려 분위기를 연출하고 시원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타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두 물놀이장에 맞게 제작·설치했다.

또 물놀이장 이용객들의 먹거리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기존 매점을 확대해 라면과 우동, 어묵 등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분식코너

등도 신설했다.

이용객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몽골텐트 등도 설치해 도심 속 최고의 여름 휴양지로 그 인기를 더해갈 예정이다.

기존 동천야외물놀이장은 기존 639㎡ 규모의 성인풀과 282㎡ 규모의 물놀이터, 직경 9.7m의 바닥분수와 파고라 등의 각종 편의 시설은 물론, 높이 6m, 길이 40m의 워터슬라이드 등의 시설을 갖췄다.

동천야외물놀이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큰 인기를 얻었던 가로 15m, 세로 15m의 대형 어린이 유아용 풀장을 올해도 설치·운영했다.

다전야외물놀이장은 울산지역에서 유일하게 길이 100m, 전체 면적 876㎡ 규모의 유수풀과 78㎡의 어린이풀, 320㎡의 물놀이터

동천·다전 쿨존, 물대포 추가로 즐길거리, 매점 확대로 먹을거리 늘려
우정물놀이공원 신규 설치, 성안·복산과 함께 3곳 무료...8월 말까지 운영



와 동천과 같은 크기의 워터슬라이드 등이 마련돼 있다.

두 곳의 야외물놀이장은 8월 31일까지 71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입장료는 성인 6,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고, 중구민과 노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다가구 원에게는 50%,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에게는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새롭게 설치한 우정공원 물놀이장을 비롯해 성안물놀이공원과 복산물놀이장은 모두 무료로, 성안물놀이공원과 복산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우정공원 물놀이장은 오후 7시까지 각각 운영된다.

중구 성안동 918-1번지 일원 함월구민운동장 옆에 위치한 성안

물놀이공원은 385㎡ 규모의 부지에 조합놀이대와 롤러슬라이드, 아쿠아샤워, 나팔샤워, 악어분수 등을 갖췄다.

복산물놀이장은 중구 중가8길 66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옆에 자리잡고 있으며, 600㎡ 규모로 조합놀이대와 나뭇잎샤워, 파고라, 막구조 등의 시설이 설치돼 있다.

6월 21일 개장식을 갖고 새롭게 운영되는 우정공원 물놀이장은 중구 우정동 444번지 우정아아파크 APT 앞에 위치해 있으며, 물놀이장 288㎡와 조경 등 전체 2,159㎡ 규모로, 조합 놀이대와 탈의실, 화장실, 수처리시스템 등이 설치됐다. 물놀이장



든든한 지방정부 구현, 일자리 만들기과 구도심 상권살리기 집중

□ 6.13지방선거에서 박태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울산 중구청장으로 당선됐다. 7월 1일부터 앞으로 4년간 민선7기의 구정을 맡게 된 박태완 중구청장 당선인으로부터 당선 소감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들어봤다.

Q.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소감은?

- 존경하는 중구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가슴 깊이 새기며 4년의 임기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천년이상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인 중구의 행정을 맡게 돼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가 가진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전국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선거에서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한 방안은?

- 자치분권 정신을 구정에 반영하고,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바치겠습니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맞춰 지체된 중구 혁신도시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도시재생 사업과 상권 살리기를 통해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Q. 앞으로 4년간 행정을 펼치게 된다. 최우선으로 추진할 정책은?

- 울산 중심도시 중구를 새롭게 혁신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있는 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교육에서 새로운 혁신모델을 도입해 혁신도시에 맞는 혁신 교육지구 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일자리 만들기과 구도심의 상권살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장현 첨단산업단지 유치와 국립병원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우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문화관광 사업을 중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끝으로 주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선거가 끝난 만큼 중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중구의회의와 함께 새로운 중구의 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주민을 위해 성심을 다하는 구청장이 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중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항상 주민들과 함께 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울산 중구**



아틀리에 도시 전 부서가 함께 만든다.

□ 울산 중구청은 6월 11일 2층 중회의실에서 '2019 올해의 관광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올해의 관광도시 TF팀 부서별 협업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구청은 앞서 '2019 올해의 관광도시'의 비전을 '자연과 감성이 어우러진 아틀리에 도시 만들기'로 정하고, 원도심 재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콘텐츠 재발전을 통한 잠재자원 발굴,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생적 발전환경 구축을 통해 관광객 4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원도심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도심 관광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주요 콘텐츠의 관광잠재역량을 확대하며, 지속가능형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현실적 대안 도출과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목적지, 울산 중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중구 아트필드 프로젝트와 울산큰애기 관광자원화 프로젝트, 지역산업 협업프로젝트, 관광도시 지원사업 등 4개 핵심사업과 원도심 아트오브제 개설, 루프탑 'The 화랑'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울산 중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등 14개 추진과제를 정해



문화재단 설립, 루프탑
'The 화랑' 조성 등
주요사업 비롯 17개부서
47개 사업 박차



오는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중구청은 문화관광실이 추진하는 핵심사업 이외에도 기획예산실과 총무과, 경제일자리과와 건설과 등 전체 16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33개 협업사업을 통해 2019 올해의 관광도시의 성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협업부서들은 문화관광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한 다매체 홍보를 비롯해 미소천사운동 진행, 종갓집 큰애기 자원봉사단 운영, 상인교육, 특색 있는 먹거리와 친절하고 편안한 숙박환경을 조성 등의 분야별 사업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젊음의1,2거리 노점특화거리 조성 및 성남둔치 푸드트럭존 운영, 문화의전당 내 루프탑 'The 화랑' 조성 및 운영 등을 통해 먹거리와 즐길거리, 볼거리를 모두 갖춘 매력적인 관광도시 울산 중구로 발돋움하기 위해 심도 깊은 토론을 벌였다.

중구는 이후 매월 월·주간 보고회 시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추진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9 올해의 관광도시를 대비한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할 예정이다. 울산 중구



중구, 복지사각지대 주민 잘 챙겼다.

□ 울산 중구청이 지난 겨울 동안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발굴·지원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 결과, 울산 중구를 비롯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21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겨울에 비해 높은 지원 실적을 올린 울산 중구를 비롯한 전국 10개 지자체를 '실적 우수 지자체'로,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을 발굴·지원한 11개 지자체를 모범사례로 각각 선정했다.

중구청은 이 기간동안 지역 내 단전이나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의 고위험 가구들에 사례관리자가 방문해 상담·조사 후 전체 600건에 대해 복지급여 지원 또는 민간지원 연계 등의 지원을 벌였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23건을 지원한 것보다 3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보건복지부는 이런 높은 실적 향상을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실적을 세부적으로 보면 바우처연계 지급이 89건으로 가장

“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전체 600건

발굴 및 지원...

2016년 보다 3배 증가

”

많았고,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43건, 부식지원 41건, 차상위계층 지원 26건, 집수리 등 22건, 일자리 연계와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이 각각 17건이었다.

또 긴급지원이 10건, 사례관리 지원 9건, 한부모 등록 지원 3건과 기초연금 지원 1건 등이었고, 기타로 322건을 지원했다.

중구청은 현재 겨울 동안 발굴·지원된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의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전체 1,226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관리비 체납 가구 공조 협조를 통해 3개월 이상 관리비 장기체납가구 등을 찾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 발굴 안전망 구축 강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6월 중으로는 폐지수거 취약계층의 전수조사를, 7월부터는 긴급지원 수급자 모니터링을, 10월부터는 구청과 13개 동 등지에 희망우체통을 설치·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구, 드림스타트 사업 'Very Good'

□ 울산 중구청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8년도 전국 드림스타트 사업 점검 평가'에서 전국 131개 시·군·구 드림스타트 운영 기관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월 31일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2016년에 이어 2년만에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중구청은 '가' 등급을 받아 울산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받으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과 교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구는 2013년 7월 드림스타트 전담조직을 설치한 뒤 관련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토대로 한 통합사례관리를 비롯해 아동들의 건강검진, 치과진료, 체질개선 사업 등 건강관리 지원을 벌여 왔다.

또 독서지도, 학습지도, 특기적성교육, 부모교육 등 교육지원과 가족문화체험, 심리상담지원, 아동권리교육 등 복지사업도 펼쳐 왔다.

“
아동통합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등 인정...
5월 31일 장관표창 수상
”



중구는 이번 평가 중 현장점검에서 구청장의 관심도가 높고, 이전 평가 자료와 비교할 때 업무적으로 상당히 발전했으며, 지역 내 후원·연계기관의 증가 폭이 큰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맞춤·통합 사례 관리가 우수하고,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맞는 맞춤 사례관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이들의 변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잘 돼 있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구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연령과 발달 정도, 양육 환경 등에 따라 서비스계획을 수립해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교육 등 4대 분야별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아동과 기존 대상자의 가정방문을 통해 396명의 사례관리를 실시했고, 4대 분야 56개 프로그램 연간 3,100명의 아동에게 운영한 바 있다. 



중구, 지역 특성 맞는 건강사업했다.

□ 울산 중구보건소가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사업 추진으로 인해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중구보건소는 5월 17일 대구 EXCO에서 열리는 '제10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한편, 표상금 1,350만원도 수여받았다.

이는 지난 2016년 '최우수기관', 지난해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은 것으로, 그 동안 성공적인 사업운동을 벌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결과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게 운동과 영양, 비만,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 심뇌혈관질환과 치매 예방관리,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여성과 어린이 특화(모자보건)사업 등 12개 영역의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구보건소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증진과 일상 속 신체활동 건강 환경 조성,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취약계층 건강 더하기,



3년 연속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에 선정...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센터 노인특화사업 등 지역사회 연계 협력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

세부적으로는 금연 환경 조성사업으로 금연 홍보 게시판 설치와 함께 5분 건강메시지 동영상상을 제작해 태화강 대공원 전광판을 활용, 지역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강조함으로써 건강증진 환경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벌였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건강홍보관'을 운영해 대상자의 호응과 만족도를 동시에 올림으로써 보건복지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건Go! 타Go! 건강Go!' 건강환경조성을 통해 뱃살 로드맵 42개와 건강계단 2개소를 설치하는 등 사업 규모를 확대해 목표 대비 127% 성과를 거둔 부분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정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한 결과, 목표대비 117%의 결과를 만들었고,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도 향상시켜 높은 점수를 얻었다. 

2018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성과

일시 2018년 5월 18일 (금) 9:30~12:15

장소 대구 엑스코 3층 325호



보건복지부



한국건강관리공단



중구 지역민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잘했다'

□ 울산 중구보건소는 5월 18일 대구 EXCO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2018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성과대회'에서 2018년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인 국민영양관리사업의 '우수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한편, 포상금 100만원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평가를 통해 계획수립과 추진성과, 목표달성 등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중구보건소를 비롯해 전국 12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중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의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것은 지난 2015년에 이어 두번째다.

중구보건소는 이번 평가에서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과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성인과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조리실습을 진행한 점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강 100세를 위한 최적의 영양관리'를 위해



지난 2015년 이어
두 번째 영예...

연령별 맞춤형 영양관리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을 시행해 9개 경로식당에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동시에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유제품을 지원했으며, 어르신과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통해 저염선택율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 맛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스스로 간식 만들기를 지원하고, 편식예방 영양교육을 실시해 아침식사

결식률을 낮추는 등 건강생활실천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도 펼쳐왔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제고와 임산부 및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빈혈감소 개선율이 84.2%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다문화가정 여성의 적응과 건강관리를 위해 다문화가정 건강증진 교육과 함께 김치와 소풍 도시락, 밀반찬 만들기 등의 한식 요리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한식 체험을 통한 문화교류 등 인식 개선과 편견해소에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도 마련했다. 



중구, 어린이급식 수준 높였다.

□ 울산 중구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중구청은 5월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한 '2018년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최종 성과보고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식약처가 전국 215개 센터를 대상으로 급식소 지원업무와 센터 전체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정량평가, 정성평가, 현장평가, 센터 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활동실적이 우수한 울산 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전국 41개 지역센터를 비롯해 조리환경 개선과 적정염도 조리, 적정 배식량 준수 등 관리수준이 높아진 어린이집 급식소 18곳에 대해 시상했다.

중구청이 설치·지원하고, 울산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는 울산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중구 어린이의 건강과 행복 증진'이라는 비전과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위생·영양관리 시스템



울산 지역 최초...
급식관리 수준 향상,
맞춤 교육, 특화사업 개발 등
높은 점수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2014년 12월에 개소해 운영 중이다.

중구청은 첫 해 7,300만원의 예산을 시작으로 매년 지원 예산을 늘려 지난해에는 4억원 올리는 5억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영양사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식단개발과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울산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센터장으로 영양사 등 11명이 근무 중이며,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 등 전체 168개소를 대상으로 100% 등록해 영양·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센터 가이드라인과 식품위생법 준수를 통해 등록시설의 철저한 영양·위생 순회방문지도를 벌이고, 순회방문 당시 배식과 염도 확인 등의 영양전문가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급식관리 수준을 높였다.

특히, 중구지역 특색에맞춘 조리사가 참여해 신 메뉴를 개발하고, 어린이와 함께하는 제철식품 텃밭체험 등 특화사업을 개발에서도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것으로 중구청은 풀이했다. 



중구도시관리공단, 창의혁신 성과 '인정'받았다.

□ 울산 중구도시관리공단이 새 정부 들어 처음 실시한 '2017년도 지방공기업 열린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일자리 창출 등 주민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자체 사업을 통해 정부의 혁신 평가에서 높은 인정을 받아 공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이 같은 성과를 거둬 의미를 더하고 있다.

중구청에 따르면 울산 중구도시관리공단은 4월 2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년 지방공기업 열린혁신 평가'에서 울산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열린혁신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새 정부 초기 사회 혁신과 정부 혁신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에 혁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의 146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의 혁신 동력 확보와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주인인 시대에 필요한 '국민의 주도적 참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요소를 평가지표에 반영했다.

이번 평가는 추진전략과 체계, 노력, 국민 공감 성과 등 총 4개 항목의 계획수립과 과제발굴 등 11개 평가지표로 진행해 우수와

“
무인정산시스템 도입,
시니어일자리 창출 등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인정
”

보통, 미흡의 3단계 평가등급으로 나뉘었다.

행안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 고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혁신평가단과 국민 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다.

이 결과, 지방공기업 33곳 등 전국의 59개 기관 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울산에서는 5개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중구도시관리공단만 우수기관 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거뒀다.

중구도시관리공단은 평가에서 구민 주도 네트워크 구축과 참여 행정, 창의혁신 성과를 두루 인정받았다.

특히, 중구수영장을 신규로 운영하고, 공영주차장에 무인정산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유관기관과 연계해 시니어일자리를 창출 하는 등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내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반영되며, 행안부는 우수 기관 중 혁신추진 실적이 탁월한 기관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중구

'중구 문화의거리 280M 더 늘어난다.'



중구, 문화의거리 육성위원회서 확대 지정 결정...1일 공고

□ 울산 중구청은 5월 20일 열린 '2018년 제1차 문화의거리 육성 위원회'에서 문화의거리 확대지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해, 시계탑사거리에서 울산교사거리까지 280m 구간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 문화의거리 확대지정은 지난 3월 준공된 시계탑거리 보행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시계탑사거리에서 울산교사거리까지 280m 구간을 기존 양방향 2차선 차도에서 1차선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고, 인도폭을 6m 이상으로 늘려 보행자 편의중심의 도로로 개선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문화의거리 육성위원회는 구 울산초등학교 맞은편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보행자 중심의 거리가 울산교사거리까지로 연장돼 문화의거리로서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췄다고 판단해 이번 확대지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 회원들은 논의를 거쳐 문화의거리 확대지정의 필요성에 공감한 뒤 해당 건을 원안가결했다.

중구청은 위원회 결과에 따라 6월 1일 자로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의거리 구간 확대지정을 공고했으며, 이로 인해 구 울산초등학교 맞은편부터 울산교사거리까지 490여m 구간을 모두 문화의거리로 지정·운영하게 됐다.

태화강대공원서 자전거 늦게까지 즐기세요.



중구, 6~9월까지 4개월간 2시간 연장 대여

□ 울산 중구청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태화강대공원 내 위치한 자전거대여소와 동천강변에 위치한 중구자전거문화센터의 자전거 대여 시간을 각각 2시간씩 연장한다.

이에 따라 태화강대공원 자전거대여소와 동천강변 중구자전거 문화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게 되며, 이중 자전거 대여는 운영이 마감되기 1시간 전인 오후 7시까지 2시간 늘어난다.

이번 자전거대여소 연장 운영은 하절기를 맞아 태양이 길어짐에 따라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태화강변을 찾아 자전거를 대여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태화강대공원 자전거대여소에는 현재 2인승 28대, 4인승 47대를 비롯해 남성용 17대, 여성용 28대, 남여공용 52대, 주니어용 25대, 어린이용 60대 등 257대가, 동천강변에는 2인승 9대와 4인승 5대, 남성용 42대 등 전체 132대가 배치돼 있다.

자전거 대여는 지난해 8월 실시된 자전거 유료화 시스템을 통해 평일에는 1시간 무료고,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의 경우 다인승은 1시간 2,000원에 30분 초과당 500원을, 1인승은 1시간 1,000원에 1시간 초과당 500원의 비용을 받고 있다.

중구, 우수기 침수 피해 방지 '만전'



태화·우정지구 등 5개 지역 하수관로 13.3KM 구간 정비

□ 울산 중구청은 5월 31일 태화시장 일원에서 김화진 부구청장 등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우수기 대비 하수관로 준설' 사업의 일환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018년 우수기 대비 하수관로 준설' 사업은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저지대와 우수배수 불량구간 등 상습 침수지역의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 지역은 태화·우정, 새치와 반구, 성남지구 일원으로, 중구청은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하수관로 연장 13.3km, 부피 1,100m³에 대해 지장물 제거, 퇴적토 준설과 세정 작업을 벌인다.

또 약사천 범람에 따른 주거지 침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약사천 복개구조물 내 정비작업도 병행한다.

앞서 중구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남~내항간 복개구조물의 준설, 무주골과 서원배수장, 유곡천 복개구조물 등 전체 1.7km 구간, 3,526m³ 상단에 대한 지장물 제거와 준설 작업을 모두 마쳤다.

중구청은 이날부터 6월 한 달 동안 나머지 12.3km 구간의 우수측구와 오수관로 내부 준설작업을 벌여 모든 준설 작업을 마쳤다.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함께 양수기 교육·훈련 실시



성남둔치서 양수기 5대 운영 실습 진행

□ 울산 중구청은 6월 5일 중구 변영교 하부 지하차도 인근에서 지역자율방재단 등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수기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 및 훈련은 올 여름 태풍 내습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등 풍수해 피해 발생 시 현장에 즉시 투입돼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4~5명씩 팀을 만들어 6인치 양수기를 직접 만져보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작동법을 익히고, 실제 반복 운영함으로써 손에 익혔다.

또 6인치보다 작은 5인치 양수기 1대와 3인치 양수기 3대도 배치돼 작동법을 실습해 보며 서로간의 의견을 나눴다.

이번 훈련에 이용된 3인치와 5인치, 6인치 양수기는 1분당 각각 1,000ℓ와 2,500ℓ, 6,000ℓ의 물을 퍼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나, 최소 2~3명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해 사전에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다.

중구청은 저지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140대의 양수기를 비치해 재난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

2018 중구 구민의 날 행사 개최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에 조성자, 권의호씨 선정해 시상

□ 2018 중구 구민의 날 행사가 5월 15일 울산 중구 문화의전당 함월홀 지역 주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중구청은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하고 울산의 중심 종갓집 중구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처음 구민의 날을 5월 15일로 제정한 바 있다.

중구 구민의 날은 1598년 정유재란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도산성(울산왜성) 전투에서 승리해 선조 임금께서 울산군을 울산도호부로 승격시킨 날이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중구심포니오케스트라가 요한스트라우스의 라데츠키 행진곡, 대중가요를 편곡한 모음곡을 연주했으며, 이어 중구여성합창단이 최근 만든 중구 구가를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으로 연주해 박수를 받았다.

기념식에서는 올해 7번째를 맞은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조성자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 학성동분회 회장과 권의호 울산광역시 새마을지부 회장에게 각각 효행·봉사 등의 부문과 산업·경제 등의 부문에서 헌신적인 봉사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각각 수여했다.

식후 행사로는 중구의 관광 캐릭터인 ‘울산큰애기’를 부른 가수 김상희 씨와 울산아리랑을 부른 오은정씨의 축하무대가 잇따랐고, 가수 김상희 씨를 울산 중구의 홍보대사로 위촉해 중구를 알리기로 해 의미를 더 했다.

“올 여름 폭염, 중구가 잡겠습니다.”



중구, 2018년도 폭염대응 종합대책 본격 추진... 무더위쉼터 지정, 재난도우미 운영

□ 울산 중구청은 폭염으로 인한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2018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9월 말까지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기관에 통보했다.

‘폭염대응 종합대책’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보호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폭염대책을 수립·추진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 지역은 지난해 폭염주의보 10일, 폭염경보 16일로 전체 26차례의 폭염이 발생했고, 최초 발생일은 5월 30일로 매년 지속적 으로 빨라지고 있는 추세여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폭염대응 종합대책’에는 ▲폭염 전담 TF팀 구성과 상황 관리체계 구축 ▲무더위쉼터 지정·운영과 점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도로변 살수 작업 실시 ▲폭염 피해예방 홍보와 캠페인 추진계획 등이 포함됐다.

광도시 중구 알리기 '박차'



중구, 제1기 울산큰애기 SNS서포터즈 모집

■ 울산 중구청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SNS를 통해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울산 중구'를 알리는 '제1기 울산큰애기 SNS 서포터즈'를 모집했다.

'울산큰애기 SNS 서포터즈' 모집은 중구 공식 SNS에 구민을

서포터즈로 참여하도록 해 울산 중구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전달함으로써 '2019 올해의 관광도시'인 중구를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포터즈에는 울산 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은 사람,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밴드 등 SNS에 사진과 동영상 등을 포함한 홍보자료를 활발히 게시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지원방법은 울산 중구청 홈페이지(junggu.ulsan.kr) 또는 중구 문화관광홈페이지(junggu.ulsan.kr/tou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finewind@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 또는 중구청 문화관광실(☎052-290-3695)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중구는 7월 30일쯤 발대식을 통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선발된 인원은 오는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2018년 제1회 울산 중구 블로그 공모전 개최

6월부터 10월말까지 중구 관광, 축제 등 포스팅한 작품 한해 응모 가능

■ 울산 중구는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중구의 특색 있는 모습을 포스팅한 블로그를 뽑는 '2018년 울산중구 블로그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블로그 공모전은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울산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중구의 숨은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관광과 축제, 볼거리와 맛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 발굴해 소개하고자 추진됐다.

블로그 공모 주제는 'I am ground 중구 소개하기!'로, 응모 대상작은 울산 중구를 주제로 한 관광지와 체험코스, 역사문화탐방, 여행추천코스, 울산큰애기 등의 테마를 선정해 특색 있는 모습을 포스팅한 작품이다.

또 태화강습리대숲과 입화산자연휴양림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힐링관광을 소개하거나, 중구를 주제로 독창적인 스토리를 입혀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는 스토리텔링 작품도 가능하다.

참가는 공고일 기준 본인 블로그를 운영 중이고, 해당 블로그 내에 10개 이상의 포스팅을 이미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지역과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11월 5일 오후 6시까지, 울산 중구청 홈페이지(junggu.ulsan.kr)나 중구 문화관광홈페이지(junggu.ulsan.kr/tou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finewind@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포스팅한 작품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한 사람당 최대 3작품까지 출품할 수 있으며, 응모작의 경우 전체공개와 댓글, 공감과 검색이 허용돼 있어야 한다.

도심에서 가까운 중구 태화연 캠핑장에서 삶의 여유와 행복을...

박삼동 기자



□ 지난 2월 8일에 개장한 태화연 캠핑장(태화동 278-2번지 소재)이 시민들의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다. 이 캠핑장은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울산테크노파크 맞은편 태화저수지 주변으로 조성됐다.

주요시설로는 일반오토캠핑장 32면과 소형 오토캠핑장 8면 그리고 카라반 전용 오토캠핑장 5면이 있다. 각 사이트마다 분전

함이 설치돼 전기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부대시설로 화장실, 주차장, 취사장, 샤워장 등이 마련돼 캠핑족을 만족시키고 있다.

저수지를 중심으로 간단한 소풍 등을 즐길 수 있는 입구 잔디광장, 산책로, 벤치, 그네의자 등이 마련돼 캠핑을 하지 않더라도 산책하기에 좋다. 특히, 도심에서 차량으로 10분 내에 도착할 수 있어 점차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이용객이 몰리고 있다.

필자가 방문한 6월 첫 주말에는 노란 금계국도 활짝 피어 장미와 늘어진 버드나무와 더불어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돼 호젓이 산책하거나 벤치에 앉아 저수지를 바라보며 담소를 나누는 시민들의 여유롭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시설사용료와 예약은 중구 야영장 및 캠핑장 통합운영시스템(<http://www.junggu.ulsan.kr/camping/main.do>)을 통해 할 수 있고, 중구민은 30%, 그 외 울산시민은 20% 요금감면 혜택을 준다.

미니어처 관광홍보를 제안하며

박정관 기자



□ 그간 중구는 원도심의 쇠락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라는 의미의 옷을 입혀 원도심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노력은 마침내 2019년 관광도시 선정이라는 결실로 나타났고, 현재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세 가지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울산시립미술관이 있는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도심 전체가 미술관이 되는 오픈 갤러리와 예술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아틀리에를 구상 중이다. 둘째, 울산 마두회 축제 등을 비롯한 수많은 공연과 행사이벤트를 연다. 셋째, 울산큰애기의 스토리발굴과 디자인 상품, 공연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여기에 필자는 중구에 '미니어처 그랜드 하우스' 조성을 제안해 본다. 오랜 세월 풍상(風霜)을 겪어온 병영성, 한글지킴이 외솔 최현배 선생과 생가, 어련당, 시립미술관, 큰애기 하우스, 성남동 시계탑, 태화루와 함월루, 재래시장들과 젊음의 거리 같은 현대식 건물들. 특히 혁신도시에 들어선 새로운 건물들의 각종 미니어처는 생각만 해도 멋진 청사진이지 않은가.

현재 남구 선암호수공원에는 한국기록원에 올라있는 미니종교 시설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중구에 가칭 미니어처 그랜드 하우스를 마련한다면 중구는 관광도시로서 또 하나의 볼거리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성공원, 생활 속에서 거둔다.

박상태 기자



□ 중구 학성동에 위치한 학성공원은 1990년대 울산 유일의 공원이었다. 그 시절 많은 상춘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데이트 코스로 봄이면 벚꽃이 만발한 공원을 거니는 등 많은 인파가 다녀간 곳이었다.

지난 3월 31일 이곳에서 2018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제3회 울산 동백축제가 열렸다. 울산동백은 일본에서

400년만에 자생지였던 울산으로 돌아와 현재 학성공원 온새미로 광장의 울타리 안에서 관리 중이다.

오전부터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됐고, 오후에는 개회식과 더불어 점등식이 열려 학성공원을 환한 불빛으로 물들였다. 마침 활짝 핀 벚꽃이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은 지역민들이 야경과 벚꽃을 보기위해 학성공원을 방문해 축제를 즐겼다. 과거에는 백일장, 사생대회 등 많은 제법 규모가 큰 행사가 개최됐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날씨가 더운 요즘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찾은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매일 아침 6시에 아침 에어로빅을 시작으로 9시에는 학춤을 무료로 배울 수 있어 구민들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던 옛날의 명성을 되찾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있는 학성공원은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과 삶을 여유롭게 해주는 것에 만족할 것이다.

시청자 미디어센터 견학을

김정숙 기자



□ 중구뉴스 기자단은 지난 3월 12일 울산 북구 명촌에 있는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견학했다. 중구뉴스 기자단의 뉴스제작 체험을 통해 기사작성 요령 등을 습득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기사를 주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견학은 강사의 방송시나리오 설명을 듣고 나열한 대사를 받아 2인 1조로 아나운서와 앵커 방송 기자역할을 직접 체험하는

방송 제작으로 진행됐다. 또 일기예보도 진행해 진짜 방송 제작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번 체험은 미디어를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외에 상상력을 발휘하며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리터러시 프로그램이었다.

방송체험에 이어 시청자 미디어센터 시설물 및 내부를 견학했다. 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16년 12월에 개원했으며, 방송체험 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미디어를 돕고 방송교육 및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 21세기형 공공문화시설이다. 센터 내부는 라디오제작실, 사진촬영실 및 편집실, 공연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청자 미디어센터 견학과 체험 시간은 10시, 14시, 16시로 각각 2시간(단 월요일과 토요일은 제외)이 걸린다. 유치부에서 노인층 까지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단체 또는 개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센터의 미디어교육을 이수한자는 시민 누구나 정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카메라 및 조명시설 등 촬영 장비와 편집기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중구민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이 체험을 즐겨보길 바란다.

제6대 중구의회, ‘유종의 미’ 거두며 의사일정 마무리



□ 중구의회는 지난 4월 23일 제20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6대 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8년 당초 예산보다 11.8%(409억4,250만원) 늘어난 3,868억7,000여만원 규모의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밖에도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10건의 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태풍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 특위활동도 무사히 마무리 지었다.

한편 제6대 울산중구의회는 4년간 8번의 정례회와 30번의 임시회를 통해 총 253건의 조례안과 36건의 예산안 등 모두 37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기초의회를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울산중구의회, 조례 제정 위한 공개토론회 ‘눈길’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어린이 안전도시 관련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 토론회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중구의회는 지난 3월 5일 의원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의원과 김경환 의원, 이영환 인권연대이사, 김중국 은성유치원 원장, 중구주민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인권과 관련 문제와 어린이집 등에서 실제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조례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이들이 각종 사고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활성화시켜 안전수칙을 생활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효상 의원은 “조례제정에 앞서 미흡한 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현장 실무진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공개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 주민들에게 보다 유용하고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조례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울산중구의회, 의원 역량강화 위한 다양한 교육 마련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지난 1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세부내용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고 다가올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 및 회계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첫날인 29일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임정식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의원들과 사무국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강을 가졌다.

이어 30일에는 한빛회계법인 도광록 회계사를 강사로 초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재정운용 등에 대한 강의와 함께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의 실무능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울산중구의회 의원들, 모범적 의정활동 공로 인정 수상 이어져



■ 울산 중구의회에 의원들이 2018년 상반기 활발한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중구의회 김경환 의원은 지난 3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2018 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김경환 의원은 동료의원들의 효율적 의정활동을 돕고 각종 조례안 발의와 현장방문활동,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앞서 지난 1월 10일에는 이효상 의원이 울산장애인인권포럼으로부터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효상 의원은 지난 2017년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이렇게 예방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법

- 01**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손씻기
- 02**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하기
- 03** 생식을 삼가고 중심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하기
- 04** 물 끓여 마시기
- 05** 조리도구는 끓이거나 열소독하기
- 06** 주변환경 청결히 하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대응요령

- 1** 배탈,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릅니다.
- 2** 집단 식사원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 3**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일주일 이상 조리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 4** 조리자가 식중독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음식을 조리할 중단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TEL : 043)719-2114 FAX : 043)719-2100 http://www.mfds.go.kr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현황

5년 평균('12년~'16년) 기준 ※겨울철(12월~2월)

연간 식중독 환자수	겨울철 식중독 환자수	겨울철 식중독 발생건수
전체 6,325명	전체 823명	전체 61건
노로바이러스 1,239명	노로바이러스 465명	노로바이러스 25건

◆ 5년('12~'16년) 평균 월별 노로바이러스 발생건수 (월/건)

1	2	3	4	5	6	7	8	9	10	11	12
8	6	5	4	3	1	1	1	2	7	12	

● 노로바이러스란?
급성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

● 노로바이러스 특성?
- 한여름철을 제외한 시기에 식품 및 원자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감염
- 낮은 온도(-20℃)에서도 오래 생존
- 소량(10개)으로도 발병가능
- 구토물, 분변 1g당 1억개의 노로바이러스 존재
- 구토물에 오염된 손으로 만진 문고리 등을 통해서도 감염 가능

● 노로바이러스 증상?
- 감염후 24~48시간 후에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발수, 복통, 근육통, 두통 등을 일으킴
- 통상 3일 이내 회복되나 1주간 분변으로 바이러스는 계속 배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요 감염경로

노로바이러스

- 식품/식재료 오염: 조개류, 김치, 문어수 등
- 감염확산: 사람 간 접촉, 식품 취급 종사자 감염 등
- 환경 오염: 용수 및 해수 오염, 각종 식재료 생산 단계 양식장 등의 오염 발생
- 바이러스 배출: 사람, 구토, 분변 등
- 환경 유입: 토양, 지하수, 연안해수 등

노로바이러스 구토물 처리방법

- 1** 일회용 장갑, 마스크, 가운 착용
- 2** 종이타월 등으로 안쪽을 향해 닦기
- 3** 구토물 및 종이타월을 바로 비닐봉투에 넣고 1,000~5,000ppm 염소소독
- 4** 구토물이 묻은 바닥도 1,000~5,000ppm 염소소독
- 5** 비닐장갑도 3번의 비닐에 넣어 1,000~5,000ppm 염소소독
- 6** 비누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손씻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이것만 지키면 안심!

비브리오패혈증이란?
비브리오패혈증균에 오염된 수산물을 날 것으로 먹거나 피부의 상처를 통해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급성 세균성 질환입니다.

주요 발생 시기
해수 온도가 18℃ 이상 되는 여름철 7~9월에 주로 발생
1~6월 7~9월 10~12월
해수 온도가 18℃ 이상 상승

균의 취약점
냉장 5℃에서는 균이 증식하지 못하고 60℃ 이상 열에 아주 약함

감염경로별 주요 증상

	경구감염	피부감염
발병시기	6~10월	
주 감염경로	어패류생식	피부상처
장복기	24~48시간	12시간
주요 증상	발열, 오한, 구토, 수포, 궤양	

비브리오패혈증, 이렇게 예방하세요!

어패류 구입 시 가급적 5℃ 이하로 저온 보관
씻김용은 구분하여 사용하고 칼, 도마 등 열탕소독 건조 후 사용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은 후 섭취
85℃ 이상에서 가열처리 하여 섭취

개인이나 위생장 등 공중위생 철저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 접촉 금지

간 질환 환자 등 고위험군은 특히 주의

특히 주의하세요!
간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악성종양, 폐결핵 등 만성질환자, 백혈병, 면역결핍환자 등

2018 울산 중구 '블로그' 공모전

I am Ground~ 중구소개 하기!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고일 기준 본인 블로그를 운영중이며, 본인 블로그 내 10개 이상 포스트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포스팅기간 2018. 6. 1 ~ 10. 31

접수기간 2018. 10. 1 ~ 11. 5 (18:00시 까지)

※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및 문화관광 홈페이지 참조

공모주제
울산 중구를 여행하는 법

참가방법
finewind@korea.kr 이메일 접수
- 참가신청서 이메일 제출
- 울산중구청 홈페이지 및 문화관광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대상별 상금

구분	수량	상금
대상	1	100만원
최우수상	2	각 50만원
우수상	5	각 30만원
입선	20	각 10만원

울산광역시 중구청 | 접수 문의 : 중구청 문화관광실 (052-290-3695)

2018년 7월 1일부터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

이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며, 재산관리 및 치료, 요양 등 폭넓은 보호를 제공하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대한민국법원 자세한 안내는 **가정법원**을 검색해보세요

울산큰애기가 알려주는!
불법주정차 단속 예방 안내

후방차기동&공회차기동은 주의하세요!
미운은 청태 주차하시면 안돼요!

단속시간은 이렇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40,000원 부터예요

경남에도 교통흐름을 위해 주정차 단속은 계속 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290-3980)

2018 울산 중구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울산 중구



PEN

야외물놀이장!

*개장일은 무료입장!

2018.6.22~8.31

운영시간 10:00~22:00 (우정공원은 19:00까지)

☆4
새단장!!

쿨~존 설치(CoolZone)

물대포~(WaterCannon)

오시는길

동천야외물놀이장
다전야외물놀이장
성안물놀이공원
복산물놀이장
우정공원물놀이장

동천자전거문화센터옆
다운동아큰마을아파트 맞은편
성안동 함월구민운동장옆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옆
우정아이파크아파트앞



요금안내

어린이(만5세~만12세)	>	2,000원
청소년(만13세~만18세)	>	4,000원
성인(만19세이상)	>	6,000원
워터슬라이드(일일이용권)	>	2,000원

※ 성안, 복산, 우정공원물놀이장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중구 주민은 입장료의 50% 를 감면해드립니다
(자원봉사증소지자 30% 감면)

*신분증 등 증빙자료 제시



울산광역시 중구청



울산광역시 중구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복산동) T 052)290-3000 F 052)290-3999